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8. 25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스웨덴, 국가 테러위협 수준 상향조정

- 8.17 언론은 스웨덴이 테러위협 수준*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상향 조정했으며, 이는 최근 쿠란 소각과 관련하여 테러단체들이 스웨덴에 대한 공격을 촉구하는 등 위협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

* 총 5단계 중 4단계는 구체적인 위협이 인지된 상태를 의미

○ 교황, 군비 축소 및 인도주의 지원확대 촉구

- 8.19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인도주의의 날*을 맞아 군비를 줄이고 인도주의 지원을 확대하자고 호소했으며, 국제기구의 핵심사업이 무기 산업보다는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

* '03.8월 바그다드에서 폭발물 테러로 희생된 인도주의자들을 기리기 위해 '08년 제정

미주

○ 美, 총으로 사망한 어린이·청소년 역대 최다

- 8.21 언론은 美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 통계를 인용, '21년 미국에서 4,752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이는 '18년 대비 42% 급증한 수치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고 보도

※ 전문가는 美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인종차별 등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

○ 美, 자국민에 벨라루스 출국 권고 및 여행경보 상향

- 8.21 국무부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주재 美대사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벨라루스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에게 즉시 출국할 것을 권고하고, 여행경보를 가장 높은 4단계(여행 금지)로 조정

※ 벨라루스내 러시아軍 증강, 자의적 법 집행, 구금 위협 등을 이유로 설명

아 · 태평양

○ 파키스탄, ISIS 소속 고위급 테러리스트 체포

- 8.21 언론은 파키스탄 경찰 대테러부(CTD)가 펀자브州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던 중 자국내 다수지역에서 폭탄테러를 모의하던 ISIS 소속 테러지휘관 3명을 포함한 조직원 13명을 체포하였다고 보도
- ※ 체포 당시 테러에 사용될 급조 폭발장치 등이 포함된 무기보관함을 압수

○ 베트남, 총기 불법제작·유통한 일당들에게 ‘징역형’ 선고

- 8.21 외신은 베트남 법원이 직접 총기 제작 후 판매한 「부티 디엵 (33세, 女)」 등 17명에게 최대 ‘징역 9년’을 선고하였으며, 공안이 이들의 주거지에서 수 백정의 총기와 고무 탄환을 압수했다고 보도
- ※ 「디엵」은 지난 '19년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재범

중 동

○ 요르단軍, 시리아 국경에서 ISIS 전투용 마약 대량 압수

- 8.19 요르단軍은 성명을 통해 국경수비대와 정부 마약단속국 요원 등이 시리아 국경 일대에서 합동작전을 전개,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던 밀수단을 적발해 일명 ISIS 전투용 마약으로 알려진 칩타곤* 6만 3천 정을 압수했다고 발표
- * 암페타민과 카페인이 주성분으로 복용 시 며칠간 밤을 새울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각성효과가 있으며 ISIS의 전투용 마약으로 유명

아프리카

○ 소말리아, 틱톡·텔레그램 등 차단 명령

- 8.20 소말리아 정부는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이용하는 테러단체들이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틱톡, 텔레그램 및 도박사이트 폐쇄를 명령했으며 이를 어길 시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
- ※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 차단이 아닌不正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재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반발

바그다드, UN 본부 차량 폭탄테러 발생

- '03.8.19,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북동부 소재 카날호텔*에서 대형 차량 폭탄테러가 발생, UN 특사 등 24명이 사망하고 100여명 부상
 - * 同 호텔은 이라크戰 이전부터 UN 무기사찰단 본부로 사용되었으며, 당시 UNICEF와 식량농업기구를 제외한 UN 및 산하기관 직원 380여명 근무
- 무장단체들은 UN의 이라크 재건 활동을 방해·저지하기 위해 UN 사무실·본부 등을 지속적으로 공격
- 8.21 '모하메드의 제2 선봉부대'가 同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
 - 이들은 방송을 통해 UN이 미군과 영국군의 이라크 점령을 허용한 것을 비난하며, '승리 혹은 순교할 때까지 저항하겠다'고 발표
- 이에, UN 등 국제사회는 즉각 비난에 나섰고, 미국도 '테러범의 본질과 그들을 소탕해야 할 이유가 드러났다'며 강력한 대응을 경고
- 한편, 일각에서는 "UN의 '이라크 제재'로 인해 이라크內 무장단체들의 적개심·분노가 높아 UN이 테러 타겟이 되고 있다"고 분석
 - ※ 「데니스 헬리데이」前 UN 사무차장은 UN의 이라크 제재와 관련 "이라크를 복구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대량학살을 자행한 것과 같다"고 언급

< 차량 폭탄 테러 >

- (정의) 차량 內에서 폭발하도록 고안된 사제폭발물(IED)로 차량탑승자를 겨냥하거나 차량 외부의 사람이나 건물을 공격하는 형태의 테러 공격
 - * 차량돌진 테러 : 차량을 시설물이나 사람들을 향해 주행하는 공격 유형으로 차량 자체를 살상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폭탄 테러와 구분
- (특징) 구하기 쉽고 조작과 목표물 접근이 용이하며, 자살 공격 형태 외에 원격조작 등을 이용할 수도 있어 많은 테러 공격에서 주된 공격 수단으로 사용
- (위협성) 대량의 폭탄을 은닉하고 운반할 수 있어, 통계상 일반 폭탄 테러 대비 2.5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